

이 인기 원장과 함께하는 실전 수의치과(30)

실란트의 적용2 (치내치, 치외치, 쌍생치, 융합치, 블랙트라이앵글)



이 인기
튼튼동물병원 원장
medivetmen@hanmail.net

Q. 안녕하세요. 이원장님. 늘상 일산 튼튼동물병원 치과 카페에서 임상게시판과 임상Q&A는팅만 하는 **병원 원장입니다. 오늘 카톡을 드린 이유는 스켈링을 하다가 모양이 이상한 치아를 보았는데, 그것이 원장님 치과카페에서 보았던 치내치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카톡을 드립니다. 치내치의 경우 원장님께서 처치방법으로 실란트를 시술해야한다고 답변을 다신 것을 보았는데, 치내치하고 실란트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A. 지난호에서 우리는 실란트 시술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수의치과 베이직과정 수강했던 선생님들의 경우는 실란트를 충치예방 차원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실란트는 단순히 큰어금니에 충치예방만을 목적으로 시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술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질문하신 원장님이 치내치에서 실란트 적용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질문을 하였는데, 치내치 외에도 치외치, 쌍생치, 융합치, 블랙트라이앵글에 대해서도 실란트를 시술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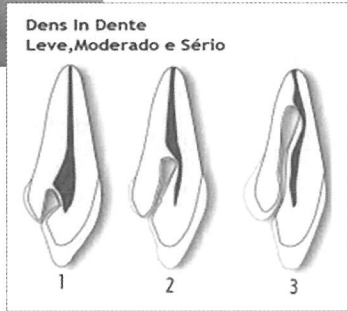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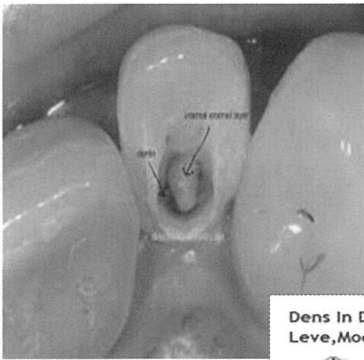
실란트 = 구치의 pit 충치예방뿐 아니라 폭넓게 적용할수 있는 예를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내치(Dens invaginatus)

치내치란 말 그대로 치아 안에 치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좌측 사진을 보면 치아가 이상한 모양으로 보이고 있고, 우측 방사선 사진을 보면 치아안에 치아가 있는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치아를 치내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치내치는 아래의 그림처럼 3가지 타입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 Type1 : 치아의 크라운 내에서 존재하고 CEJ밑에까지 넘어오지 않음
- Type2 : 치아의 크라운 밑의 뿌리부분까지 침범
- Type3 : 치아의 대부분이 침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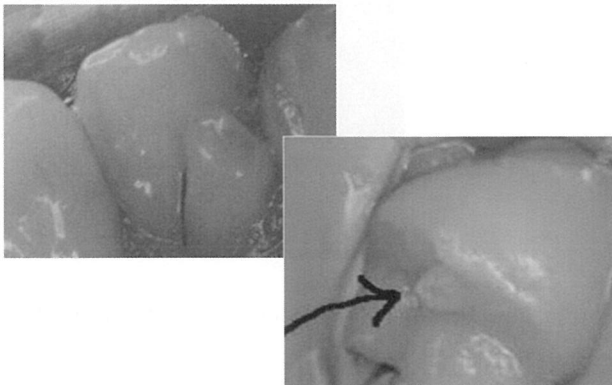
위의 분류를 보고 나니 우리가 기존에 Pit부분에 실란트를 적용했던 것보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즉 더 충치에 취약할 뿐 아니라 치주염에 걸리기도 쉽고, Type3의 경우는 골절이 되기도 쉬워보입니다.

당연히 치내치에서의 실란트의 적용은 필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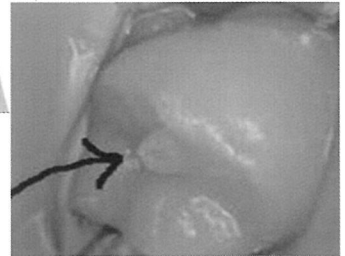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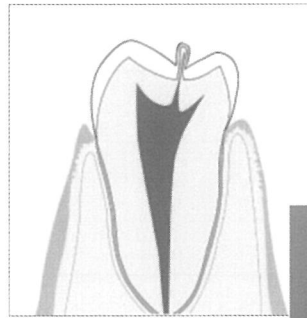
그럼 이제는 치내치와는 반대의 개념인 치외치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까요.

치외치(Dens evaginatus)

치외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치아밖에 치아가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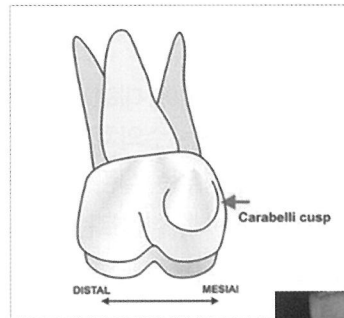


이런 치외치는 아래와 같이 빨간색의 치수부분이 위로 올라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pit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면, 신경이 노출되어 신경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란트로 예방을 해주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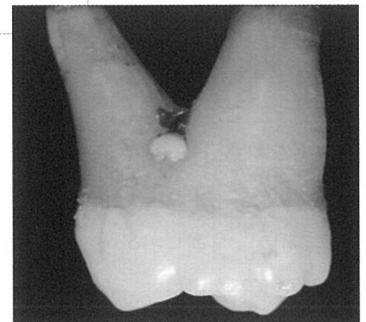


만약 운이 없게 pit가 떨어져 나가서 신경치료를 해야할 경우 비용은 치아 한 개라 할지라도 크라운까지 비용이 80만원 나오는데 비해서 실란트로 예방은 1/100 금액인 8천원으로 예방이 되니 보호자들에게 아주 좋은 예방방법이고, 꼭 예방을 해야하지요.

단 아래의 모양도 치외치와 비슷하셔서 감별 진단을 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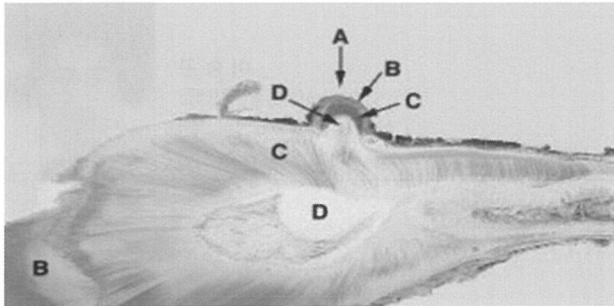
구치 결절



범랑질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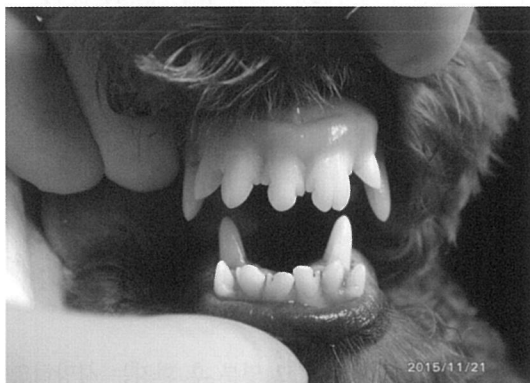
범랑질진주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치수(pulp)가 결절있는 부위까지 나와있지 않으므로 실란트의 필요성은 없습니

다. 아올러 루트부위에 있으므로, 실란트를 하기도 힘들다. 법랑질진주가 있는 부위는 치주인대와 부착이 안되므로 나중에 이부위에 치주염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Legend
A - enamel pearl C - dentin B - enamel D - pulp

아올러 융합치와 쌍생치에도 실란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생 각이 만나시는 선생님들은 23회“쌍생치, 융합치”편을 참조하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융합치란 1 번째, 2번째 앞니가 서로 달라붙은 것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 서 쌍생치란 1번째 앞니의 경우 루트는 한 개인데 크라운이 2 개인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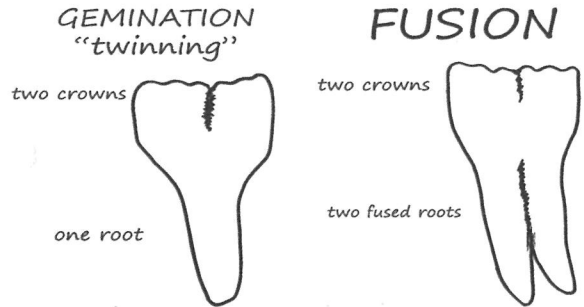


융합치(fusion tee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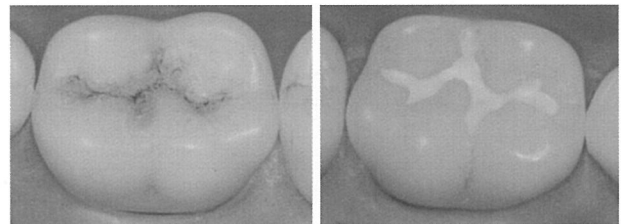
쌍생치(germination teeth)

즉 쌍생치란 1개의 루트, 2개의 크라운이고, 융합치란 각각 다른 치아가 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지거나 융합된 부위에 충치가 생기기 쉬우므로 처치법으로 실란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래와 같이 여태까지 실란트란 단순히 스켈링 후에 충치예방을 위해서 구치의 pit부위에만 시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제 이번호와 다음호를 공부함으로써 실란트의 적용분야를 더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Before

After

다음호에서는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블랙트라이 앵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처치법 중 실란트가 나오니 실란 트를 공부하는 김에 같이 실란트의 적용범위를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